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2보) -정량분석을 중심으로-

이봉덕 · 양숙희*

광주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숙명여자대학교 의류학과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21st Century(Part II) -Quantitative Study-

Bong Duk Lee · Sook Hee Yang*

Dept. of Fashion Design, Kwangju Women's University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2. 7. 4. 접수)

Abstract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regarding five dominant characteristics of fashion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21st century, subsequent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it was found that 85% of the clothes analyzed showed these five characteristics. Secondly, among the five characteristics, the new-naturalism shows the most significant trend and neo-retro was also found as one of the leading features along with the new-naturalism in the transitional period of the 21st century. However, the frequency of technicism is less than was expected. Thirdly,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fashion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fashion designers and seasonal changes show that new-naturalism, neo-retro and hybrid spread relatively evenly among each designer. The quantitative study confirmed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Key words: content analysis, hybrid, technicism, neo-retro, new naturalism, multi-nationalism;
내용분석, 혼성, 기술지상주의, 신복고, 신자연주의, 다민족주의

I. 서 론

본 연구는 정량분석 방법인 내용분석방법(contents analysis)(Paoletti, 1982)을 사용하여 제 1차 연구(이봉덕, 양숙희, 2002)의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validity)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이 방법은 조사 연구 결과의 신뢰도와 내부 타당도(Internal validity)를 고양시키기 위해 정성 분석(qualitative analysis)과 정량적 분석(quantitative analysis)을 함께 사용하는 통합적 분석(triangulation)(Matison, 1988)의 원칙을 따라 시행된다. 이를 위해 21세기 전환기

패션자료를 대상으로 패션특성의 분포도를 정량 분석하여 각 디자이너별·시즌별 패션특성의 분포와 변동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성분석의 결과인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도출 및 분류의 타당성을 확인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정성 분석 결과

다음의 <표 1>과 <표 2>는 제 1차 연구의 정성분석

<표 1>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I

구분	내용	특성	패션 특성
혼성 (hybrid)		성의 혼성(genderless) : 제 3의 성 추구	남성복식과 여성복식의 혼용 (이미지, 아이템, 형태, 소재, 디테일 등의 혼용)
		신분, 문화의 혼성 (identity loss, cultural confusion)	하이패션과 스트리트스타일 혼재 (아이템, 형태, 소재, 디테일, 소품 등의 혼성)
기술 지상주의 (technicism)		기능성 강조(functionalism) : 탈 인체	복합 기능 복식 (기능성 장치, 소품, 하이테크 소재)
		미래 지향(futurism) : 미래 동경	미래주의적 요소 도입 (사이버 소재, 테크노 형태, 멀티 컬러)
신 복고 (neo-retro)		과거 복고(retro) : 노스텔지아	복고풍 (과거 복식 차용, 과거와 현재 스타일 혼재)
		원시 회귀(primitivism) : 반 문명화	비 문명적 요소 도입 (원시주의적 요소 : 이미지, 신체장식, 소품)
신 자연주의 (new-naturalism)		생태주의(ecology) : 자연, 순수 회귀	자연적 요소 도입 (자연의 식물 문양, 천연 소재, 컬러, 형태)
		인간 중심(humanism) : 인간 본성 회귀	인간신체 강조 (노출, 시스루소재, 편안함과 안락감 추구)
다 민족주의 (multi-nationalism)		다 문화(multi-culturalism) : 탈 인종주의	비 서구, 동양풍 (중국, 일본, 한국, 인도, 중동, 아랍 등)
		지역성(localism) : 제 3세계 추구	각 민족적 요소 혼재 (각 나라의 민족의상 요소 차용)

에서 파악된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이다.

하고 이를 분석하여, 패션특성 도출 및 분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2. 내용분석법(contents analysis)

본 연구에서의 정량분석은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용한다.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은 객관적이고 체계화된 연구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빈도와 분포 조사, 통계 활용 등을 통하여 정량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분석 방법을 총칭한다. 내용분석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명확한 목표나 가설의 설정, 둘째, 변수를 측정할 수 있는 설문지 등의 방법 또는 미리 준비된 범주의 확보, 셋째, 편견이 개입되지 않은 표본의 수집, 넷째, 수집된 표본의 체계적 기록, 다섯째, 적합한 통계기법을 이용한 자료의 분석 등이다(Paoletti, 1982). 파올레티(Paoletti)는 역사적 패션의 분석에 인상주의적 분석 방법 이외에 정량적인 분석법인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Jang & Paoletti, 1987). 또한 국내에서도 김혜경(1998)은 복식 연구에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용분석 방법은 정성분석의 결과인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특성 다섯 가지를 분석범주로 설정

II.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자료수집

분석자료는 20세기말과 21세기초에 걸쳐 패션의 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패션디자이너를 선정하여 그들의 컬렉션에 제시된 패션사진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분석 대상의 패션디자이너 선정은 패션 전공자들(패션전공 교수 3인, 패션트렌드 연구원 1인)이 다음 근거를 기준으로 한다. 패션디자이너는 세계 최대 패션 데이터 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는 패션 전문 인터넷 사이트 퍼스트뷰(<http://www.firstview.com>)에 등록되어 있으며, 2000년과 2001년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Prêt-a-Porter Collections)에 지속적으로 작품을 발표한 패션디자이너 중에서, 작품활동이 활발하며 지명도가 크고 실험정신이 강한 대표 디자이너를 국적 및 활동 무대와 상관없이 선정한다. 4명의 패션 전공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디자이너를 순서대로 10명

<표 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 II

구분	내용	패션 예시				
혼성 (hybrid)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5>	
기술지상주의 (technicism)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신 복고 (neo-retro)						
	<사진 11>	<사진 12>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신 자연주의 (new-naturalism)						
	<사진 16>	<사진 17>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다 민족주의 (multi-nationalism)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사진 24>	<사진 25>	

<사진 1> Jean Paul Gaultier, 2000 A/W, <사진 2> Jean Paul Gaultier, 2001 A/W, <사진 3> Vivienne Westwood, 2000 A/W, <사진 4> John Galliano, 2000 A/W, <사진 5> Comme des Garçons, 2001 A/W, <사진 6>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7> Issey Miyake, 2000 A/W, <사진 8> Paco Rabanne, 2001 S/S, <사진 9>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10> Paco Rabanne, 2001 A/W, <사진 11> John Galliano, 2001 S/S, <사진 12> Alexander McQueen, 2000 A/W, <사진 13>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14> Vivienne Westwood, 2001 A/W, <사진 15> Alexander McQueen, 2000A/W, <사진 16> Alexander McQueen, 2001 S/S, <사진 17> Thierry Mugler, 2000 S/S, <사진 18> Alexander McQueen, 2000A/W, <사진 19> Comme des Garçons, 2000 S/S, <사진 20> Paco Rabanne, 2000 S/S, <사진 21> Kenzo, 2000 S/S, <사진 22> John Galliano, 2001 S/S, <사진 23> Kenzo, 2001 S/S, <사진 24> Alexander McQueen, 2000 S/S, <사진 25> Kenzo, 2000 S/S

*사진출처: <http://www.firstview.com>

<표 3> 패션특성의 종합 분포

(%) n=3200

특성 빈도수	혼성	기술	복고	자연	민족	기타	총계
계	407(13)	455(14)	613(19)	1046(33)	192(6)	487(15)	3200(100)
	2713(85)						

(A: Alexander McQueen, B: Christian Lacroix, C: Comme des Garçons, D: Issey Miyake, E: Jean Paul Gaultier, F: John Galliano, G: Kenzo, H: Paco Rabanne, I: Thierry Mugler, J: Vivienne Westwood) 을 선정하였다. 이는 특정한 디자이너가 선택의 기준이 아니고 전체 트렌드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이너를 포함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패션디자이너의 의상은 21세기 전환기인 2000년 봄/여름부터 2001년 가을/겨울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에 발표된 의상을 대상으로 하며, 분석 대상 패션 사진은 디자이너별, 시즌별 총 800장을 추출한다. 분석 대상 패션사진 수는 4인의 전공자가 분석하여 총 3,200장이 된다. 패션 사진 추출은 분석대상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 의도를 알지 못하는 비전공자가 디자이너별, 시즌별로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한다. 사진 추출시 정면 사진을 원칙으로 하고 포즈가 다른 동일 의상은 제외한다.

2. 자료분석

분석범주(analytical category)는 정성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이 된다. 즉, 혼성(hybrid), 기술지상주의(technicism), 신 복고(neo-retro), 신 자연주의(new-naturalism), 다 민족주의(multi-nationalism)가 내용분석을 위한 분석범주로 설정된다.

수집된 자료를 패션특성별로 분류하고 자료를 계량화한다. 자료 분류는 수집된 패션사진 800장을 5가지 패션특성인 혼성, 기술지상주의, 신 복고, 신 자연주의, 다 민족주의 별로 분류한다. 분석자들은 사전 충분한 토의를 거쳐 분석대상의 범주 특성을 공통적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교육 및 훈련을 거쳐 분류자간 신뢰도(inter-judge reliability)가 80% 이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분류작업을 시행한다.

분류된 결과를 기술통계(記述統計, descriptive statistics) 방법에 의해 계량화하여, 최종적으로 패션 특성의 분포현황과 디자이너별, 시즌별 분포 및 변동

추이를 파악한다.

III. 분석 결과 및 논의

1. 패션특성의 분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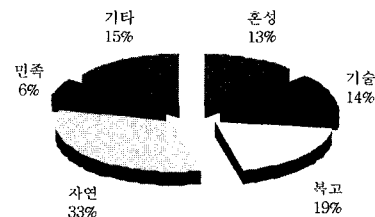
1) 패션특성 도출의 타당성 확인

패션특성 분포를 분석한 결과, <표 3>의 내용을 <그림 1>의 그래프로 표시하였는데, 어떠한 패션특성에도 속하지 않는 기타 항목을 제외하면, 분석한 총 대상 3,200장(4명의 분석자가 800장씩 분류) 중에서 85%(2,713장)가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패션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결과는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에 관한 정성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따라서 정성분석에 의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도출 및 분류가 논리적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각 패션특성의 분포 현황

<그림 1>과 같이 패션특성 중에서 혼성의 빈도는 13%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기술지상주의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기술지상주의 분포비율은 14%로서 그렇게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1세기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기술과 관련된 의상의 출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대 패션과 미래적 개념의 갈등 속에서 아직은 실제 패션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은 이유 때문인



<그림 1> 패션특성의 종합 분포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기술 위주의 발전과 문명에 대한 반발로 신 자연주의적 의상이 지속적으로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신 복고의 특성은 19%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신 자연주의와 함께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주도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자연과의 조화, 옛것과의 조화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 자연주의적 특성은 33%로서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특성 다섯 가지 중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신 자연주의적 특성의 부상은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지상주의 사회에 대한 반 테크니시즘적 경향, 즉 자연중심, 인간중심의 패러다임 변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민족주의 경향은 6% 분포로서 가장 미미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21세기 전환기 패션은 신 자연주의와 신 복고의 두 가지 특성이 주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자연과의 조화, 옛것과의 조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 패션 경향이 부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디자이너별 · 시즌별 패션특성의 분포와 변동 추이

1) 디자이너별 분포현황

① 디자이너별 패션특성의 분포현황

<그림 2>는 <표 4>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성은 디자이너들이 대체적으로 선호하는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술지상주의 특성은 디자이너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특정 디자이너를 제외하고는 전체 디자이너들에게 미미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기술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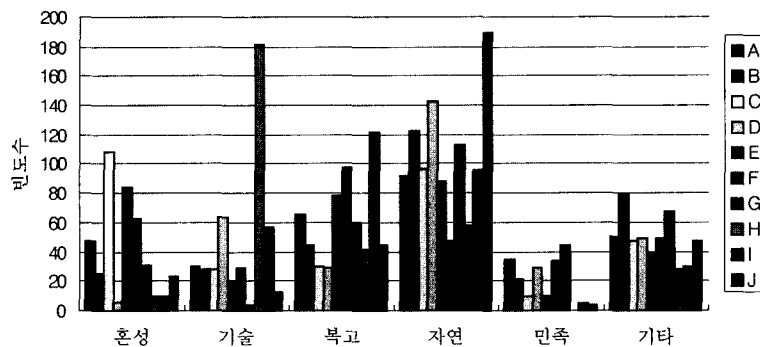
<표 4> 디자이너별 패션특성의 분포 n=3200

특성 디자이너	혼성	기술	복고	자연	민족	기타	총계
A	47	30	66	92	35	50	320
B	25	28	44	123	21	79	320
C	108	28	30	97	10	47	320
D	6	64	29	143	29	49	320
E	84	20	78	88	10	40	320
F	63	29	98	47	34	49	320
G	31	4	60	113	44	68	320
H	10	182	42	58	0	28	320
I	10	57	122	96	5	30	320
J	23	13	44	189	4	47	320
계	407	455	613	1046	192	487	3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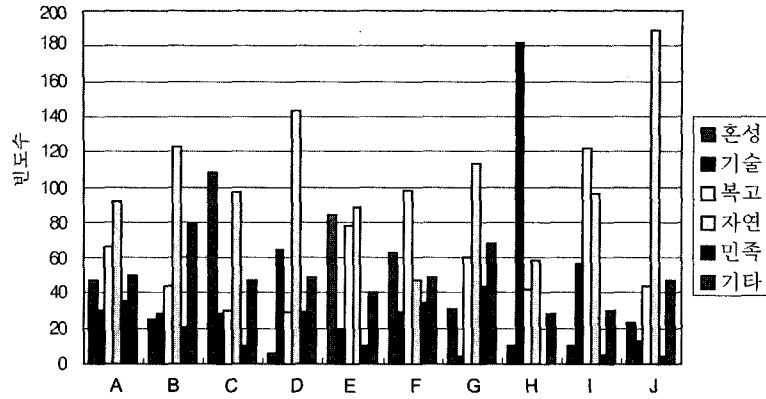
주의가 디자이너들의 창작 컨셉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나 일부 급진적인 디자이너를 제외하고는 실제 패션에 아직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 복고적 특성은 신 자연주의와 함께 디자이너들의 주요 패션 컨셉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 자연주의나 신 복고, 혼성의 특성은 각 디자이너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다민족주의 경향은 디자이너별 분포는 균등하나 빈도수는 다른 특성에 비하면 미미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아무런 특성이 없는 기타로 분류되는 작품의 수가 각 디자이너별로 균일하다는 것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분류한 다섯 가지 패션특성이 각 디자이너별로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증빙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② 각 디자이너 10명의 패션특성 분포



<그림 2> 디자이너별 패션특성의 비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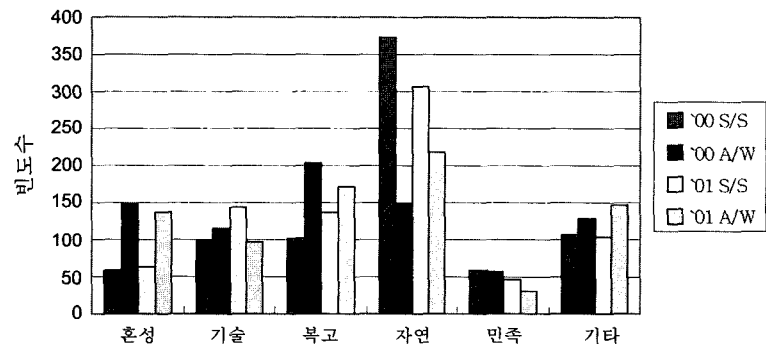


<그림 3> 각 디자이너의 패션특성 분포

<그림 3>과 같이 디자이너 A는 다섯 가지 특성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 B의 경우 신 자연주의 경향이 중요한 특징이 되고 있다. 디자이너 C는 혼성과 신 자연주의 경향이 작품의 주된 특성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디자이너 D의 경우 신 자연주의 경향이 가장 지배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특이한 사실은 신 자연주의에 상반되는 개념인 기술주의 경향이 동시에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디자이너 E의 경우에는 혼성이 중요한 특징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신 복고와 신 자연주의 경향 역시 주요 구성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 F의 경우 기술지상주의를 제외한 거의 모든 특성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그 중 특히 신 복고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디자이너 G의 작품에서는 신 복고와 신 자연주의가 특성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자이너 H는 다른 디자이너와는 달리 기술지

상주의 특성이 작품의 주종을 이루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신 자연주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디자이너 I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기술지상주의, 신 복고, 신 자연주의적 특성이 공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디자이너 J의 경우는 신 자연주의 경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술지상주의의 패션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패션특성들이 각 디자이너들 작품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나, 디자이너별 편차는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정된 디자이너가 실험성이 강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각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패션의 경향은 전체적인 패션 트렌드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디자이너 개인이 평소에 추구하는 경향과 새로운 세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특성간의 충돌과 조화 현상이 일어나



<그림 4> 시즌별 패션특성의 분포

<표 5> 시즌별 패션특성의 분포 n=3200

시즌 \ 특성	혼성	기술	복고	자연	민족	기타	총계
'00 S/S	59	99	102	374	59	107	800
'00 A/W	148	115	204	148	56	129	800
'01 S/S	63	144	136	306	47	104	800
'01 A/W	137	97	171	218	30	147	800
계	407	455	613	1046	192	487	3200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시즌별 패션특성 분포와 변동추이

① 시즌별 패션특성 분포

<그림 4>는 <표 5>의 내용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인데,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성의 특징은 2000 가을/겨울과 2001 가을/겨울에 집중적으로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기술지상주의는 시즌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신 복고 경향은 전체적으로는 출현 빈도수가 많지만 시즌과 디자이너별로 변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신 자연주의 경향은 전 시즌에 걸쳐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다 민족주의의 시즌 편차는 안정적이나 전체 분포 수는 미미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② 각 시즌의 분포현황

<그림 5>와 같이 2000년 봄/여름에서는 신 자연주의 특성의 분포가 가장 많으며 나머지 특성들은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0년 가을/겨울의 경우 패션특성이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봄/여름은 신자연주의적 특성이 2000년 봄/여름과 동일하게 강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가을/겨울에서는 다 민족주의의 특성을 제외하면 패션 특성들

은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신 자연주의와 신 복고 경향은 전체 패션특성 중 출현빈도가 높은 것으로 이미 파악되어 있으나 시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 자연주의 특성이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을/겨울 컬렉션에서는 신 자연주의와 신 복고 경향이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 자연주의적 특성이 인간 본성의 회귀 및 자연 순수성의 추구를 위해 자연소재의 사용과 인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봄/여름의 의상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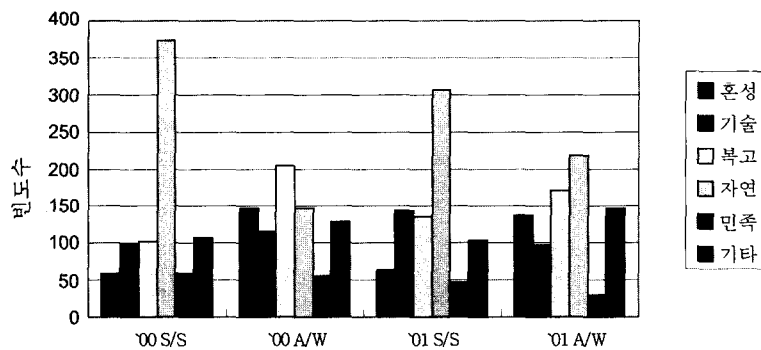
③ 시즌별 변동추이

<그림 6>과 같이 혼성의 변동추이는 계절적 변동 양상이 다소 나타나고 있으며, 신 복고 경향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지상주의의 경향은 각 시즌별로 변동이 거의 없으며 신 복고 경향은 혼성과 변동하는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두 패션특성 사이에 패러다임적 공통점이나 상호간의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 자연주의는 전체적으로 출현 빈도가 많기는 하지만 각 시즌별로 변동이 심하고 후반기에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한편 다 민족주의의 경향은 절대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시즌 별 변동의 비교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디자이너별 시즌별 패션특성의 분포와 변동추이 결과를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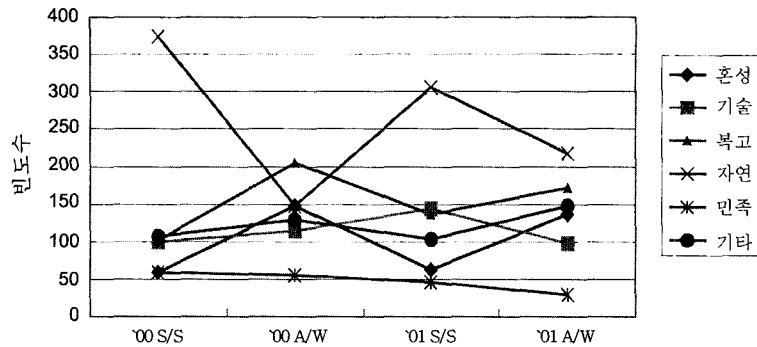
이 상의 정량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패션특성 분포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1. 정성분석의 결과 도출 및 분류가 타당성이 있는



<그림 5> 각 시즌의 패션특성 비교분포



<그림 6> 시즌별 패션특성의 변동추이

<표 6> 패션특성의 디자이너별 · 시즌별 분포 및 변동추이

구분	내용	디자이너별 분포현황	시즌별 분포현황	시즌별 변동추이	결과
혼성		디자이너의 기본적 특성	가을/겨울 분포가 봄/여름보다 우세	계절적 변동양상 나타남 신복고와 비슷한 변동양상 보임	디자이너의 일반적 특성 가을/겨울에 주로 분포
기술지상주의		특정 디자이너를 제외하고 대다수 디자이너 분포되지 않음	시즌별 분포가 고르게 나타남 시즌별 빈도수가 많지 않음	계절적 변동이 거의 없음	특정 디자이너 외에는 반영 안됨 디자이너들의 기본적 특성
신복고		전체적으로 고른 분포이나 약간의 편차 보임	가을/겨울 시즌 우세한 편 시즌별 편차는 크지 않음	시즌별 변동이 극심함 전반적으로 시즌 별 증가 추세	신 자연주의와 함께 주도적 특성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 추세
신자연주의		디자이너간 편차 거의 없음 디자이너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성	시즌별 편차는 비교적 고른 분포 봄/여름 강세	후반기 갈수록 편차가 감소 비교적 안정적 분포 유지	패션특성 중 가장 주도적 특성 봄/여름 강세 시즌별 편차 심함
다민족주의		전체적으로 미미한 분포 디자이너 H, I, J는 거의 분포되지 않음	전 시즌 편차가 안정적 전체 분포 수는 미미함	가장 안정 분포 절대 빈도수가 적어 비교 무의미	패션특성 중 가장 미미한 분포 소수 디자이너에게 분포
종합		신자연주의, 신복고, 혼성은 디자이너간 고른 분포 기술지상주의는 디자이너간 큰 편차 다민족주의 전체적 미미한 분포	봄/여름 시즌에는 신자연주의 우세 가을/겨울에는 신자연주의, 신복고 분포 거의 동등	신자연주의 변동 가장 현저 다민족주의 변동 미미	신 자연주의의 가장 주도적 특성 기술지상주의는 특정 디자이너에 주로 분포 패션특성들의 계절적 변동추세 강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용분석 대상 패션 중에서 85% 이상이 정성분석에서 도출된 패션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정성분석에 의한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미학적 특성에 대한 패션특성 도출 및 분류가 논리적 방향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주된 특성 다섯 가지 중에서 신 자연주의의 특성이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다. 이

는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술지상주의의 사회에 대한 반 기술주의의 경향, 즉 자연중심, 인간중심의 패러다임 변동을 예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신 복고는 신 자연주의와 함께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주도적 특성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의 자연과의 조화, 옛것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4. 그러나 기술지상주의의 특성은 예상보다 빈도수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1세기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기술과 관련된 의상의 출현이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현대 패션과 미래 개념의 갈등 속에서 아직은 실제 패션으로 형상화되지는 않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기술 위주의 발전과 문명에 대한 반발로 신 자연주의적 패션이 지속적으로 많이 출현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디자이너별·시즌별 패션특성의 분포와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1. 디자이너별 분포현황의 경우,

1) 신 자연주의나 신 복고, 혼성의 특성은 각 디자이너에게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세기가 바뀌는 2000년을 중심으로 향후 몇 년간 신 복고와 신 자연주의 경향은 앞으로의 패션 트렌드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 기술지상주의 특성은 디자이너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술지상주의가 디자이너들의 창작 컨셉에 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나, 일부 급진적인 디자이너를 제외하고는 실제 패션에 아직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3) 디자이너 10명 각각의 패션특성 분포현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패션특성들은 각 디자이너들 작품에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으나, 디자이너별 편차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선정된 디자이너가 실험성이 강하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갖고 있으나, 각 디자이너가 추구하는 패션의 경향은 전체적인 패션 트렌드 속에서도 자신의 개성을 꾸준히 추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디자이너 개인이 평소에 추구하는 경향과 새로운 세기가 바뀌면서 나타나는 특성간의 충돌과 조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시즌별 분포현황과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는

1) 패션특성의 출현 빈도는 시즌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신 자연주의 특성의 경우 봄/여름 컬렉션에서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을/겨울 컬렉션에서는 신 복고 경향과 거의 동등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신 자연주의적 특성이 자연소재의 사용과 인체의 특성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봄/여름의 의상이 더욱 적합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 시즌별로 변동하는 추이를 분석하면, 신 자연주의는 전체적으로 출현 빈도가 많기는 하지만 각 시즌

별로 변동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후반기에 갈수록 편차가 줄어들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신 복고 경향은 혼성과 변동하는 양상이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 두 패션특성 사이에 패러다임적 공통점이나 상호간의 영향 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민족주의 경향은 절대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시즌별 변동의 비교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IV. 결 론

21세기는 기존 문화 개념의 전개를 전복한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가치관 및 세계관이 수용되고, 문화의 발전 양식도 한층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것의 근간을 구성하고 있는 미학 특성도 역시 급진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20세기에서 21세기로 변화하고 있는 전환기의 패션은 변화의 수용과 저항이라는 급격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패션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학 특성 변화에 대한 총괄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2차에 걸친 종합 연구의 2부로서, 정량 분석 방법의 하나인 내용분석법을 통하여 정성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 심층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봄/여름부터 2001년 가을/겨울까지 2년간의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패션 자료 800장을 분석하여 정성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패션특성의 디자이너 별·시즌 별 분포현황 및 변동추이를 파악했다.

제 1차 연구에서는 정성분석을 통해 21세기 전환기 패션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파악했으며, 이러한 특성이 실제로 패션에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2차 연구에서는 패션디자이너의 컬렉션 자료를 정량분석하여 정성분석의 특성 도출 및 분류가 타당성이 있음을 검증하였고 각 패션특성의 디자이너 별·시즌 별 변동 사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기본 사상을 근간으로 하여 생성·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다원성과 관용성이 각 특성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현재에도 다원성과 불확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모더니즘적 패러다임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탈 장르, 탈 경계, 탈 중심 현

상이 21세기로의 전환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세기에서 21세기로 바뀌는 전환기 패션 특성의 주류가 복고적이고 자연 친화적 경향을 보이는 것은 기술 위주의 발전과 문명에 대한 반발과 함께, 현대인의 자연과 순수 추구 경향으로 인해 미학의 특성이 인간 중심(humanism)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파악된다. 이성과 합리성 개념의 전복을 의미하는 탈 미학을 중심으로 한 포스트모더니즘은 시대 조류의 부정과 대증으로부터의 이탈을 특징으로 종래의 디자인 개념을 파괴해왔으며, 그 영향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주도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정량연구의 내용분석법을 토대로 고찰을 시도한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제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분석자료 선정에 있어서 한정된 수의 디자이너 및 작품을 제시한 점과 둘째, 자료수집에 있어서 발표 년도를 제한한 점, 셋째, 여성복만을 자료로 선정하여 남성복을 제외한 점, 넷째, 오트 쿠튀르 컬렉션을 제외하고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작품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점 등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있어서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재확인하는 연구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패션에 내재된 의미를 고찰하는 연구 분야에 정성분석 외에 정량분석 방법을 상호보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는 새로운 시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 이봉덕, 양숙희. (2002).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제1보)-정성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6(11), 1649-1659.
- Jung, K. M. & Poletti, J. B. (1987). Documentation and analysis of dated Victorian Crazy quilt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5(3), 18-24.
- Kim, H. K. (1998). Methodology for the Study of Historic Clothing and Textiles -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한국의류학회지*, 22(7), 952-962.
- Matison, S. (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pp. 13-17. Denizen, N. K. (1970). The researcher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Chicago: Aldine. p. 308.
- Paoletti, J. B. (1982). Content Analysis: Its Application to the study of the history of costume.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 14-17.
- Paoletti, J. B., 앞의 글, pp. 14-17.